

보도시점

2026. 8. 20.(목) 11:00

배포

2026. 8. 20.(목) 06:00

2026. 8. 21.(금) 조간

농촌의 통합돌봄, 주민이 함께하여 더 촘촘하게!

- 농식품부·제천시,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함께 농촌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 주민공동체가 익숙한 생활공간 안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장보기 등 일상생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제천시·충북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농촌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농촌 지역의 공동체가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일상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은 넓은 지역에 고령의 주민들이 분산하여 거주하고 교통도 불편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읍·면 중심지까지 이동하여 신청하기 어렵고, 읍면 담당자 역시 농촌 지역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통합돌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보건복지부)

아울러 일부 시군은 농촌 지역을 포함한 전체 시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이 서비스 공동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읍면에서 주로 활동하여 전체 시군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통합돌봄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특성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활동 범위 때문에 농촌 주민들이 통합돌봄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빈틈을 메워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제천시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에는 서비스 제공범위를 읍·면으로 조정하여 서비스 공동체 4개소*가 참여한다. 이들 공동체들은 읍·면별로 도움이 필요한 50여명의 통합돌봄 대상자들의 신청서 작성을 돕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일상생활 서비스를 조사하여 읍·면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 후, 대상자들에게 장보기, 주거관리 등 일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산다운협동조합, 덕산누리협동조합, 도화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드림하이

이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와 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결해 주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제천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서비스 공동체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충북사회서비스원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인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성과를 토대로 향후 다른 시군의 농촌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에서 통합돌봄이 촘촘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공동체가 가진 지역 내 관계망을 통합돌봄 체계와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시범사업 참여 서비스 공동체 대상 교육현장 사진. 끝.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송재원 (044-201-1571)
		담당자	사무관	최혜림 (044-201-1572)





※ 8.12.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문화복지센터
농식품부 주관, 충북사회서비스원 주최